

영원을 담은 하루

| 김흥호 |

하루 속에 일생의 역사가 집약되어 있고 이 순간 속에 영원이 있다는 동시성에 대해 말합니다(편집자 주).



예수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냈다고 할 때 하나님을 무엇으로 나타냈나. 그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힘을 나타냈다고 한다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집트에 노예로 있던 유대 민족의 해방이죠. 그것은 피라미드를 짓던 유대 민족의 해방이죠. 피라미드를 짓느라고 노동을 하고 얻어맞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나타나서 호렘 산 밑에 가서 야훼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있고 있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겠다. 그 구원자, 엘리죠.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입니다. 야훼가 내가 이제 엘리가 되겠다. 즉, 내가 이제부터 구원해 주겠다며 정말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래 구원해 주는데, 즉 데리고 나오는데 이집트 군인들이 쫓아왔어요. 홍해 바다에 다 닿았는데 앞에는 바다요, 뒤에서는 군인들이 쫓아오는데, 이젠 모두 다 죽었구나 하고 생각할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서 바다를 내리쳤습니다.

바다를 내리쳤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져 그 홍해 바다를 건너왔다. 이것이 제일의 야훼께서 엘리라는 것을 보여 준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광야에 가니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메추리와 만나를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40년 동안이나 살게 되었다. 그것이 두 번째 엘리지요. 그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힘이 나타난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사람들이 먹고 입는 것이 걱정 없으니 정신적으로 해이해져서 다시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야단치게 돼요. 그때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받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말라, 말라, 자꾸 나오죠. 그런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 십계명

을 받는 것이 세 번째 엘리입니다. 다음에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복지로 가는데 그것이 네 번째 엘리입니다. 모세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에게 일임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와 같이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여호수아라 하여라. 여호수아는 그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복지로 가서 젓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서 살게 되어 소위 유대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 만나, 십계명, 가나안, 이 네 가지를 유대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대사람들은 법궤를 만들어 그 속에 지팡이, 만나, 십계명을 집어넣어 예루살렘에 갖다 놓고서는 굉장한 집을 짓고,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이라 하였습니다. 그 성전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해 준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 지팡이, 만나, 십계명을 제사하는 것입니다.

이 민족적인 대사건이 예수라는 인품에서 다시 한 번 되풀이됩니다. 즉 재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사탄의 세력을 끊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떡(보리떡) 다섯 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異蹟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만나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받은 것이 십계명인데, 예수님이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십계명과 예수의 십자가는 같이 재창조 되는 것이죠. 십계명을 통해서 구원한다. 누구든지 이 법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쪽에서는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같은 재창조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윗 왕에게 자랑할 만한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 이것

이 예수에게 있어서는 갈릴리 해변에서의 새로운 부활입니다.

홍해 바다와 만나와 십계명과 가나안이 예수께 오면, 예수의 40일 금식기도와 복음의 전도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말하자면 예수의 현존재, 예수의 역사적인 실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역사를 말하면 3·8선이 딱 갈리는 것, 이것이 홍해 바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동안에 꽤 흥청거리며 살았어요.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생각도 못할 자동차들이 오늘도 보면 교회 앞에 많이 와 있습니다. 높은 집들이 세워졌고, 이제는 우리도 여기서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을 정도로 꽤 잘 살게 되었어요. 어떤 의미로 보면 만나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어서야 하는 것인데, 또 정신이 타락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십계명을 받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은 정직하고 생각이 깊은, 그런 민족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과업은 남북통일을 하는 것입니다. 난 항상 “16세기는 이탈리아 시대, 17세기는 프랑스 시대, 18세기는 독일 시대, 19세기는 영국 시대, 20세기는 미국 시대, 21세기는 일본 시대, 22세기는 한국 시대”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22세기를 맡아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여야 할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이 십계명을 받아서 질서를 지키고 바로 사는 이런 수련 없이는 그러한 막중한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계명을 통해서 단결하여 우리가 남북통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역사를 가지고 세계무대에 나가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 한국 교회가 해야 될, 한국에서의 책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에 나왔는데

이것도 놀랄 만한 일입니다. 내가 맨 처음에 대학교회에 왔을 때에는 우리 교인은 한 2백 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십계명, 즉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원대하여야 합니다.

휴전선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나. 우리는 앞으로 이 휴전선을 없애고 남북통일을 하여야 합니다. 만주라는 땅은 원래 고구려 땅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본토는 만주입니다. 중국과 담판을 지어서 우리의 본토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주를 가지기 전에는 세계적인 국가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난 반드시 우리 고구려 땅을 되찾는 그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네 가지 은혜는 예수로 집약되어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 가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네 가지가 또 한 번 되풀이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삶 속에서 되풀이되던 그 바위가 예수에게서 되풀이되고 그리고 그 역사가 다시 내 삶에서 되풀이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런 면에서 이것을 동양의 숙어를 빌려서 쓰겠습니다. 내리친다는 지팡이 대신에 설 '입立' 자를, 만나 대신에 '불혹不惑'이라는 말을, 그리고 십계명이라는 말 대신에 '천명天命'이라는 말을, 가나안 복지라는 말 대신에 '이순耳順'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이것은 공자의 말씀인데 30에 입立이요, 40에 불혹不惑이요, 50에 지천명知天命이요, 육십에 이순耳順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30쯤 되면 일어서야 돼요. 한번 이집트를 집어 치우고, 새로운 국민

으로서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40쯤 되면 아무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요지부동한, 하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50쯤 되면 자기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뭘 하여야 할지 사명을 한 번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60쯤 되면 그다음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나안 복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일생에서 30까지는 어떤 실수를 해도 괜찮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30까지는 다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세가 되면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살아 봤으면 이제 인생이란 대강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생이 뭔지를 알아서는 똑바로 제발로 서야 합니다. 이 개인의 독립 없이는 절대 국가의 독립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30세가 되면 딱 서야 되고, 40쯤 되면 만나를 가지고 살 줄 알아야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50쯤 되면 그다음엔 천명을 알아야 하며 반드시 내가 태어나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내보낼 때 왜 보냈나를 확실히 알아야 하며, 나는 그것을 위해 왔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하며, 그렇게 해서 60쯤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완전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생으로 가는 이 역사를 하루 동안에 집약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에 그리스도의 일생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면 하루 속에 영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나의 일생, 나의 하루, 이것들이 언제나 하나가 되어, 즉 예수의 일생이나 나의 일생이나 나의 역

사나 나의 하루나 이것들이 하나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과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언제나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일생과 내 일생과 예수님의 하루와 내 하루가 언제나 하나가 될 때 즉 그것이 믿음입니다. 요새는 동시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예수라는 말은 시간성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끝) 

- 이 글은 《믿음의 힘》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현재 김흥호**(1919-2012) | 다석 유명모 선생께서 내리신 호는 현재. 1919년 2월 26일 평양에서 부친 김성항과 모친 황성룡 사이의 여섯 형제 중 다섯째로 출생. 1944년 일본 와세다대 법학부 졸업. 1956~1984년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및 교목실장. 미국 버틀러대 대학원 종교사학 석사. 1986년 감리교신학대 종교철학과 교수. 1996년 이화여대 명예 철학박사.